

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

金孝順**
uzzanzi@yahoo.co.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이상 문학의 불안, 공포와 근대도시 |
| 2.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과 시대 | 4. 맺음말 |
| 2-1. 1930년대 일본의 시대상황과 문단상황 | <참고문헌> |
| 2-2. 마키노 신이치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방법 | <요지> |

주제어: 이상(李箱, Lee-Sang),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Makino-Shinichi),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불안(不安, Anxiety), 공포(恐怖, Fear), 신경쇠약(神經衰弱, Nervous Breakdown)

1. 들어가며

이상(李箱, 1910~1937)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대에 걸쳐 불안한 시대의 문학을 한 몸에 구현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황, 불우한 유년기의 가정환경, 청년기의 신체적 조건 등으로 불안과 공포, 권태 속에서 늘 자살을 희망하다가 2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작가이다. 무엇보다도 이상은 도쿄(東京)에서 죽음을 앞두고, 일본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1892~1927)와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1896~1936)의 심경에 빚대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참 濟度할 수 없는 悲劇이오. 芥川이나 牧野같은 사람들이 맛보았을 성싶은 最後 한 刹那의 心境은 나 亦 어느 瞬間 電光 같이 짧게 그러나 참 똑똑하게 맛보는 것이 이즈음 한 두 번이 아니오. 帝展도 보았오. 幻滅이라기에는 너무나 慘憺한 一場의 ナンセンス입니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나는 그 펜키의 惡臭에 窒息할 것 같아 그만 코를 꼭 쥐고 뛰어나왔소.)

이는 이상이 오랫동안 버르던 도쿄(東京)²⁾행을 결행했다가 실망하고 환멸을 느낀 심경을 토로한 글이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芥川이나 牧野같은 사람들이 맛보았을 성식은 最後 한刹那의 心境은 다름 아닌 아쿠타가와가 「어느 오랜 벗에게 보내는 수기(ある旧友へおくる手記)」(1927)에서 자살 이유³⁾로 언급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같은 종류의 심정이라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불황, 관동대지진 후의 혼란, 사회주의 문학운동의 대두, 건강의 악화와 가정불화의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을 이유로 자살한 작가이다. 마키노 역시 황도파(皇道派)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인 2·26사건 직후인 1936년에 자살했으며, 그의 죽음은 시대와 관련된 문학적 죽음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의 죽음에 대해 권택영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란 『날개』의 주인공만이 아닌, ‘근대이후 도시인의 전형’⁴⁾이라 보고 있고, 조사옥은 이상의 심경에 대해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의 지식인이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은은 이상이 도쿄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공황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가 악화되었고 강제적인 침략정책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자, 자유주의자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인을 사상이 불온한 자로 처단하는 분위기였다. 이상은 이와 같은 상황에 좌절했다’⁶⁾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상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김기림은 이상 문학과 시대성에 대해, ‘그의 시는 드디어 시대의 깊은 상처에 부딪혀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도 또한 세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 만 한 줄기 첨예한 양심이었다. (중략) 이상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축쇄된 한 시대의 비극이다’⁷⁾라고 하며 이상의 죽음을 한 작가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이들 세 작가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건으로서의 아쿠타가와와 이상의 자살과 이상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쿠타가와와 자살 직전의 작품인 「갓과(河童)」(1927.3)의 종교(근대교)관과 연애론, 불안의식

1) 이상(1993) 「私信(7)」 『李箱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p.236

2) 본 논문에서 ‘東京’은 ‘도쿄’로 표기하나, 인용문 안에서는 원문 표기에 따라 ‘동경’으로도 표기한다.

3) 아쿠타가와와 자살원인으로는 ①위궤양, 신경쇠약, 불면증 등의 건강문제, ②보험금을 노린 매형의 철도자살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부담, ③유부녀와의 불륜, ④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두, ⑤창작상의 난관 봉착, ⑥혹서라는 기상상황, ⑦다이쇼에서 쇼와라는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압박 등 다기에 걸쳐 있어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다.

4) 권택영 「출구없는 반복-이상의 모더니즘-」, p.68

5) 조사옥(2002) 「이상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일본문화연구』 제7집, p.355

6) 고은(1974) 『이상 평전』 민음사, p.361

7) 김기림(1937) 「고 이상의 추억」 『조광』

을 여성이라는 메타포로 그리고 있는 「다네코의 우울(たね子の憂鬱)」(1927.5)에 나타난 ‘급변해기는 사회에 대한 불안의식’을 중심으로⁸⁾ 이미 논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아쿠타가와와 이상 문학의 관련양상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⁹⁾가 있다. 그에 반해, 마키노 문학과 이상 문학의 관련양상에 대한 연구는 김명주의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의 ‘환상성’ 비교」(『일본어교육』제55집, 2011)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김명주는 이 글에서 ‘두 작가의 ‘환상성’에는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신경증’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환상성’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막연한 지향점이었으며, 또 한 사람에게는 현실부정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탄은 필연적이었다¹⁰⁾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두 작가의 상호텍스트 층위에서 두 작가의 관련성을 논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이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과 시대상황, 자살 등을 보고 어떤 점에 심경에 처했는지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이상이 도입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일본(도쿄)의 시대상황, 문단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세계나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상황이 이상이 만년에 느낀 심경과 문학세계에 어떤 관련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과 시대

마키노 신이치는 1896년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출신의 소설가로 마키노가 태어난 다음 해 아버지 히사오(久雄)는 도미, 9세 때 귀국한다. 따라서 그는 어린 시절 조부모와 어머니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다. 보수와 진보, 인습과 개방이라는 소년기 환경이 훗날 마키노의 문학의 낭만적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 오다와라(小田原) 중학을 거쳐 1919년에는 와세다(早稲田)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사신보(時事新報)』기자가 되다. 또한 와세다대학 시절 친구들

8) 김효순(2010) 「이상 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시대를 체현하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모던걸 표상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제18권 제2호, p.128
 9) 아쿠타가와와 이상 문학의 관련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장혜정의 『아쿠타가와(芥川龍之介)와 이상(李箱)문학 비교연구 : ‘불안’의식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 박사논문, 2007.8), 노영희의 『李箱文學과 東京』 『比較文學』16, 1991), 김명주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助)와 이상(李箱)문학 비교-도쿄(東京)를 중심으로-」(『일본어교육』제44집, 2008), 「아쿠타가와와 이상문학에 있어서의 “예술관” 비교(1)(2)」(『일본어교육』제50집/제54집, 2009/2010) 등 상당수 존재한다.
 10) 김명주(2011)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의 ‘환상성’ 비교」 『일본어교육』제55집, p.200

과 동인 잡지 『13인(十三人)』을 창간 제2호에 「참외(瓜)」(1919.12)를 발표하여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으로부터 격찬을 받는다. 1931년에는 잡지 『문과(文科)』를 주재하였으며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1902~1983)를 비롯하여 당시 신진 기예들과 집필 그룹을 형성하여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 1906~1955) 등 많은 비평가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현실과 비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파탄에 의해 1936년 고향 오다와라(小田原)에 있던 친동생 에이지(英二)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다.

이러한 마키노의 자살에 대해 당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원인 즉 생활상의 궁핍, 우노 지요(宇野千代, 1897~1996)와의 관계에 의한 부부간의 갈등, 모친과의 갈등, 신경쇠약과 불면증, 창작상의 난관 봉착,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융성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신경쇠약은 단순한 ‘사고’¹¹⁾로서 혹은 생리적, 신체적¹²⁾ 문제에서 오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구루마히키 고스케(車引耕介)의 언급을 보자.

마키노 신이치의 자살 소식을 듣고 단지 고독한 한 문학자의 죽음 이상으로 시대적인 어두운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가 자각적이었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이 시대에 진 것이다. (중략) 마키노 신이치는 신경쇠약에 걸렸고, 원고를 쓸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한 문학자가, 다른 누구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더 잘 아는 한 문학자가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 리가 없다. 마키노는 즉 그 등불을 제대로 켜지 못 한 것이었다. 그는 오로지 순진한, 고독한 문학자였다.¹³⁾

마키노의 죽음이 ‘시대에 젖’서 ‘신경쇠약’에 걸린 결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마키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시대적, 문학적, 사회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같이 마키노가 자살한 것은 1936년 3월 24일이었고, 이상이 도쿄에 간 것은 1936년 10월이었다. 노영희¹⁴⁾, 김명주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상의 도쿄행은 ‘문학을 통한 자기 갱생의 염원을 담은 긴 여행’¹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小生 東京 와서 神經衰弱이 極度에 이르렀소!’¹⁶⁾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자살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남긴다.

11) 中島健藏(1992) 「日記より」『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12

12) 伊藤整(1992) 「新鋭作家座談會」『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51

13) 車引耕介(1936.3.27) 「牧野信一の自殺」『読売新聞』

14) 노영희(1991) 「李箱文學과 東京」『比較文學16』

15) 김명주(2008)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助)와 이상(李箱)문학 비교-도쿄(東京)를 중심으로-」『일본어교육』제44집, p.199

16) 이상(1993) 「私信(7)」『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236

열세벌의 遺書가 거의 完成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집어 내 보아도 다같이 서른 여섯 살에 自殺한 어느 「天才」가 머리맡에 놓고간 蓋世의 逸品の 亞流에서 一步를 나서지 못했다. 내게 요만 재주 밖에는 없느냐는 것이 다시 없이 분하고 억울한 事情이었고 또 초조의 根元이었다.¹⁷⁾

이는 『朝光』에 1937년 5월에 발표된 「종생기」의 한 구절로 이상이 죽은 때가 1937년 4월 17일인 만큼 생전에 도쿄에서 국내로 투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작품이 집필된 때는 1936년 11월 20일로 그가 도쿄에 간 것이 10월로 추정되는 만큼, 도쿄에 간지 한 두 달 사이에 쓴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은 왜 한 두 달 경험한 도쿄 생활에 환멸을 느끼며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일까? 무엇이 이상으로 하여금 아쿠타가와와 마키노의 자살심경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일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키노의 자살은 그가 자각적이었던 아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작가정신과 문학적 방법의 불일치에서 오는 파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상이 마키노의 자살심경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1930년대 초반의 시대상황과 문단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이상의 만년의 심경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2-1. 1930년대 일본의 시대상황과 문단상황

일본에서 1930년대 초반은 1931년 만주사변,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탈퇴, 2·26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군국주의화, 1923년 관동대지진 복구 후의 근대도시화 등이 사람들에게 폐쇄감을 주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26사건이란 1936년 2월 26일에서 29일에 걸쳐 일본 육군 황도파(皇道派)-1920년대~1930년대에 전체주의, 국가주의, 팽창주의를 모토로 이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던 일본제국 육군의 보수적 파벌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쇼와유신(昭和維新) 단행, 존황토간(尊皇討奸)’을 내걸고 일으킨 쿠데타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매우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192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사회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 과격화된 반면, 금융계와 산업계는 관료제와 결탁하여 더 커다란 부를 축적하였다. 이에 비해 군부는 청렴하다고 간주되고 있었으며, 육군의 일부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정치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이상(1991) 『終生記』 『李箱문학전집2』 문학사상사, p.380

그리고 황도파는 산업화 이전, 서구화 이전의 일본을 이상화하여 그곳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했다. 특히 부패한 관료, 기회주의적인 정치가, 그리고 탐욕스러운 재벌들을 일본을 타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하여 일거에 숙청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관료를 배제하고, 천황이 일본을 직접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메이지 유신에 빗대어 ‘쇼와유신’이라고 부르며 군국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동시에 이 시기는 1923년의 관동대지진 복구 이후 도쿄의 도시화가 진전됨으로써 그를 배경으로 도시문학이 성립,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진척과 궤를 함께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철과 콘크리트로 딱딱해진 제국의 수도 도쿄는 에도(江戸)이래 거리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고 국적불명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¹⁸⁾고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도시이자 소비도시인 도쿄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다음 인용문을 보자.

쇼와(昭和) 일본의 모습은 온통 SOS를 쳐야 할 지경으로, 아메리카주의와 러시아주의가 혼란스럽게 신변을 둘러싸고 있다. 실망, 초조, 불안, 공포 등의 시대정신은 태내에서 발효하고 있고, 황망히 내일의 생활을 예약하는 사람들은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의 생활에 감격하며 열심히 발버둥치던 것도 모두 그 옛날의 추억에 불과하다. ¹⁹⁾

이 글은 한반도에서 발행된 일본어 잡지 『조선 및 만주』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로 국제도시, 소비도시로서의 도쿄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메리카와 러시아주의가 혼란스럽게 신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쿄에서 사람들은 ‘실망, 초조, 불안, 공포’ 등의 시대정신에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 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면을 통해 그대로 식민도시 경성에도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1930년대 중반의 일본문단은 1920년대 말의 문단상황-다이쇼시대 말부터 쇼와시대 초기 사회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계급의식을 표방하는 프롤레타리아문학 혹은 종래의 문학의 혁신을 꾀하는 예술지상주의의 근대문학이 대두하면서 기성문학이 위축된 상황-과는 달리, ‘쇼와시대 초기 이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신감각파, 신흥예술파들에 의해 시장을 빼앗겨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세대 작가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18) 小森陽一(1987) 「都会文学の成立と展開」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昭和文学再検討—』 第32卷第10号 8月号, p.36

19) 「미인 군상 직업부인의 명암색(美人群像職業婦人の明暗色)」(『朝鮮及満州』, 1933.4). p.91

시작한²⁰⁾ 시기였다. 즉 사회의 군국주의화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문학 진영의 고바야시 다카지(小林多喜二, 1903~1933)가 학살(1933.2)되고 사노 마나부(佐野学, 1892~1953),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 1901~1979)가 전향성명을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쇠퇴하고 문예부흥이 제창된다. 예를 들어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 1872~1943)이 『동틀 무렵(夜明け前)』의 제2부 완성(1935)을 앞두고 있었고, 『만지(艸)』(1928~1930), 『순킨쇼(春琴抄)』(1932)와 같은 역작을 발표한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1886~1965)가 『문서초(聞書抄)』(1935), 『고양이와 쇼조와 두 여자(猫と庄造と二人のをんな)』(1936) 외에 구어역 『겐지이야기(源氏物語)』에 몰두하고 있었다. 또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 1892~1964)가 『기쿠스이담(掬水譚)』(1935)을 집필한 시기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향은 사소설이나 심경소설의 부활로 연결되었고, 그러한 ‘사소설과 심경소설의 발상이나 방법은 전향문학이나 모더니즘 문학을 포함하여 소위 전전(戰前)문학을 일관하는 “문학적 상수”²¹⁾가 되었다. 즉 군국주의화와 근대도시, 소비도시로의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으킨 불안과 공포, 신경증 등은 당시 사소설, 심경소설 작가들의 주요 테마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네온사인의 과동, 백화점 경쟁. 지하철 기공. 빌딩 옥상의 라디오 라우드 스피커. 환타스틱한 밤의 뒷골목. 부조 같은 마천루 꼭대기. 레뷰출연의 댄서 무리²²⁾ 들은 관동대지진 후의 도시화된 도쿄를 상징했다. 요시유키 에이스케(吉行エイスケ, 1906~1940)는, 모든 물건, 사람을 상품화하는 도시를 백화점에 비유하여 쇼윈도우에 여자를 늘어놓는 「여자백화점(女百貨店)』(1930)을 집필했고, 류탄지 유(竜胆寺雄, 1901~1992)는 ‘화장과 복장에 과잉 자신감을 갖고’, ‘백화점의 밝은 쇼윈도우 앞에서’ ‘몹시 유쾌하게’ ‘맑은 시선 속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놓고 일하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방랑시대(放浪時代)』(1930)에서 그렸다. ‘신홍 도쿄의 밤의 아스팔트 위를 화사한 구두 끝이나 자동차 등으로 스틱 걸²³⁾이나 엔타쿠 걸²⁴⁾이 날뛰기 시작한 것은 그 마네킹과 거의 같은 시대이다. 마네킹이 모더니즘의 낮의 꽃이라면 스틱 걸이나 엔타쿠 걸은 모더니즘의 밤의 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²⁵⁾라고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소설, 심경소설의 전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소외감이나 군국주의화되어가는 사회의 불안이 막연한 경색감(梗塞感)으로서 동시대 사람들을 둘러싸

20) 竹盛天雄(1990) 「明治・大正文学の命脈」紅野敏郎・三好行雄・竹盛天雄・平岡敏夫篇『昭和の文学』有斐閣, p.99

21) 竹盛天雄(1990) 「明治・大正文学の命脈」紅野敏郎・三好行雄・竹盛天雄・平岡敏夫篇『昭和の文学』有斐閣, p.104

22) 吉行エイス(1990) 「1930年後半期の新宿について」(紅野敏郎・三好行雄・竹盛天雄・平岡敏夫篇『昭和の文学』有斐閣, p.36

23) 스틱 걸(ステッキ・ガール)이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돈을 받고 남성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함께 산보를 하는 젊은 여성들.

24) 엔타쿠 걸(円タクガール)이란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손님에게 매춘을 하는 여성들.

25) 久野豊彦(1930) 「あの花! この花—あモダニズムの垢よ」『モダンTOKIO円舞曲』

기 시작했을 때 고독한 심정에 말을 걸어주는 마음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²⁶⁾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초반에서 중반은 1920년대 말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신흥예술과 등장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사소설, 심경소설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의 기성문학이 군국주의화에 의해 부흥을 보았고, 그것은 근대도시, 소비도시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안, 우울, 공포, 신경증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마키노의 문학은 무엇을 지향했고, 그 문학적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2-2. 마키노 신이치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방법

마키노의 작품세계는 일반적으로 육친이나 자신의 우등함을 그린 「아타미로(熱海へ)」(『新潮』제38권 제6호, 1923.6.1), 「아버지를 파는 자식(父を売る子)」(『新潮』제40권 제5호, 1925.5.1), 「아버지의 백일제 전후(父の百か日前後)」(『中央公論』제39권 제11호, 1924.10.1), 「악의 동의어(『悪』の同義語)」(『中央公論』제40권 제4호, 1925.4.1)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초기(1919~1927.4), 향리의 자연과 생활을 배경으로 서양 중세소설 풍의 환상적 경향을 띠며 낭만적인 작품을 보이는 「마을의 스토아파(村のストア派)」(『新潮』제25권 제6호, 1928.6.1), 「제론(ゼーロン)」(『改造』1931.10), 「바라르다이야기(バルダ物語)」(『中央公論』1931.12)로 대표되는 중기(1927.5월-9월), 초기 작품으로 돌아가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기나다마을(鬼涙村)」(文芸春秋社, 1934.12), 「나충초(裸蟲抄)」(『新潮』제32권 제3호, 1935.3.1), 「담설(淡雪)」(『文芸春秋』제13권 제12호, 1935.12.1)로 대표되는 후기(1932~1936)의 3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부친을 중심으로 하는 육친을 제재로 하는 작품을 보이며 신이치는 자신의 내부를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그것을 작품상에 표현했다. 진실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이치는 신변의 사건들을 소설화하여 생활하는 사소설가로서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악의 동의어」에 ‘사실 주인공은 나이어야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어야 할 주인공을 “그는-”, “그는”이라고 썼다. 소설적이라 해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불효자라서 그리고 너무 우매한 것이 스스로 추하게 느껴져 하다못해 주인공만큼은 “그는”이라고 하며 껄껄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었다²⁷⁾라고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자신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26) 竹盛天雄(1990) 「明治・大正文学の命脈」紅野敏郎・三好行雄・竹盛天雄・平岡敏夫篇『昭和の文学』有斐閣, p.105

27) 牧野信一(1925) 「『悪』の同義語」『中央公論』제40권 제4호

이와 같은 그의 문학적 방법과 지향은 ‘쇼와시대에 들어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융성하여 기성문학의 가치관을 크게 뒤흔들며 문단을 제압했기 때문에, 기성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신이치도 그 문학상의 신념에 동요를 초래하여 문필활동에 한계를 초래하였고 생활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신경쇠약에 걸려 오다와라로 귀향을 했다’²⁸⁾라든가, ‘마키노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따위 애초부터 경멸하고 있었다. 용감하게 부인했다. 그것은 마키노답고 훌륭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마키노는 사회의식, 시대인식 같은 것에조차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²⁹⁾’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부터도 압박을 느꼈고, 종래의 사소설 영역으로부터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그리하여 중기에는 엄격한 생활의 현실에서 도망치듯이 향리 오다와라로 돌아간다. 신이치에게 오다와라의 자연과 인간은 그의 시정을 고양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제재를 주었다. 번거로운 세상에서 멀리 벗어나 평화롭고 한가로운 마을을 배경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거슬러 오르고 편력 여행을 하며 서양적 냄새가 강한 분위기 속에 동경과 꿈을 섞으며 집필을 한 것이다. 이 시기는 시적 분위기가 있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들을 배경으로 환상적 분위기를 띠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독특한 소재를 다루며 신이치 고유의 유머, 유티, 페이스스가 있는 작품을 형성했다.

후기에는 1932년 가을 무렵부터 생활의 결핍에 의한 초조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주량은 점점 더 늘었으며 생활도 차차 안정을 잃게 되었다. 동시에 그 작품도 초기로 돌아가 수습할 수 없는 정신의 혼란을 보이게 되었다. 현실생활의 괴로움에 쫓기는 신이치는 밝은 꿈이나 동경의 세계에서 벗어나 즐거운 추억이나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공상 속에 차츰 현실이 나타나고 신이치로 하여금 공포의 세계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그와 같은 후기 작품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박제(剥製)」(『文芸春秋』1934.8)에서는 야도리기(寄生木), 기나다(鬼涙)에 있는 물레방아간이나 오토나시마을(音無村), 여우무덤 등을 배경으로 산을 넘는 모습을 중심으로 이상한 신경상태를 그리고 있다. 등장인물은 ‘나’, ‘쇼(唱)’, ‘유타(柚夫)’ 세 명이다. 심신 모두 지치기 시작하여 신경쇠약에 걸린 주인공 ‘나’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여는 것조차 거북한 정도로, 제론을 상대로 우울함을 달래고, 어머니를 생각하기도 한다. 기묘한 산넘기, 제론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증오와 공포, 그리고 산새를 박제하며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숲의 모습이 그려지며, 매우 어두운 심리상태가 나타난다. 산을 넘는 주인공은 숨을 헐떡거리며 마치 몽유병자처럼 앞으로 나아가며, ‘고독의 그림자에 위협을 받으며 겨우 발걸음을 옮기는 형편’으로 결국은 제론의 발굽에 대퇴

28) 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1974) 『近代文学研究叢書第四十卷』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 p.228.

29) 下村千秋(1992) 『牧野の生き方』『近代作家追悼文集26』ゆまに書房, p.34

부를 채여 그야말로 고민하고 있는 작자 마키노 신이치의 정신상태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마찬가지로 정체를 느끼며 심신 모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의 심리상태를 묘사한 작품에 「병상(病床)」(『文學界』1934.7)이 있다. ‘얼어붙은 찬 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창작상의 정체를 술로 달래고자 술집에 들어가 우연히 탈만드는 사람과 알게 된 주인공이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데,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술적, 육체적 고민을 각각 예민한 신경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있다. 이어서 「기나다마을(鬼涙村)」(『文芸春秋』1934.12)은 환상의 세계에서 노는 작자가 향리마을 오다와라 근처에 ‘기나다마을’을 설정하고 ‘둘러메다’는 풍습·즉 춤을 추는 축제날 밤에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산 인물을 어깨에 둘러메고 달리는데, 그래도 기절하지 않는 지는 마을 경계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풍습에 떠는 ‘나’와 탈 만드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그린 작품으로, ‘둘러메이는 것’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공포’와 ‘전율’이 작품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공포나 증오, 반감 등은 그의 작품의 환상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작품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물이라든가 흐른다와 같은 물과 관련 있는 글자를 느껴도 불길한 공상에 떨어졌다’와 같이 험박관념이나 자학정신이 유감없이 묘사되고 있다. 철저히 자기에 대해 불신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일종의 환상적 작품이면서 그 꿈과 동경은 단순히 밝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에 휩싸여 있다. 공상의 세계에 늪으로써 현실생활의 피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중기의 작품에 비해, 도저히 현실의 피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이치의 심정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마키노 문학 세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신변에서 제재를 취한 사실적 수법에 의한 사소설이며, 동시에 그것을 현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 세계로 재구성하는, 그러면서 현실의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키노의 후기 작품세계는 환상성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박제」의 우울과 공포, 어둡고 피로한 심리, 「병상」의 예민한 신경의 움직임, 「기나다마을」의 공포, 증오, 반감 등 어두운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 사소설, 심경소설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의 기성문학이 군국주의화, 근대도시, 소비도시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안, 우울, 공포, 신경증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한다면 마키노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1930년대 문학적 특징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재를 취하면서도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문학적 변천은, 그를 종래의 사소설 영역을 벗어나, ‘근대문학사의 일절로서 추구해야 할 유니크한 작가’³⁰⁾ 정도로 여겨지게 했을 뿐이다. 물론 후에 ‘마키노의 낭만적 작품은 그것이 작위적인 것이 아니었던 만큼 확실히 문학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더했다고 할 수 있다’³¹⁾,

‘마키노 신이치라는 작가는 “한쪽 구석”에 있는 존재이기커녕 가장 전위적인 문학의 실천자이며 소위 주류적 문학이 결코 실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예술수법을 선명하게 수행한 선각자였다’³²⁾라는 식으로, 전위적 작가로서, 사소설의 확충자로서 의의를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가 추도글에서 ‘나는 근년 마키노 씨와 문학상의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왕래를 끊었다. 나는 시인에서 소설가가 되었다. 적어도 되려고 했다. 우리들은 시와 소설의 차이로 만나면 반드시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마키노 씨는 이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악담을 할 뿐 서로 어색해지기만 해서 자연 만나는 횟수가 줄고 만나도 최근에는 문학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³³⁾고 밝히고 있듯이, 가부키좌(歌舞伎座)의 스즈키(鈴木)군, 나카토가와 기치지(中戸川吉二, 1896-1942) 등 몇 안 되는 동시대 친구들하고만 교류를 했을 뿐이다. 결국 그는 거의 모든 친구들과 싸움을 했고 결국 어머니와도 싸우고 아내와도 싸우고, 마지막으로 십 몇 년을 함께 산 아내도 떠나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절대 고독은 그에게 신경쇠약을 불러일으켰고, 창작상의 곤란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살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상 문학의 불안, 공포와 근대도시

이번에는 이상의 시대인식과 문학세계를 검토해 보겠다. 이상의 시대인식의 일단은 19세기 사고에 대한 거부와 20세기적인 것의 추구라는 모더니티 지향,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 대한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실망, 불안, 초조감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은 근대도시로서의 경성 거리를 활보하며 즐겨 카페를 이용하는 모던 보이임을 자처한다. 그는 시골(성천)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권태를 느낀다고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新聞도 오지 않는다. 所謂 乘合自動車라는 것도 通過하지 않으니 都會의 消息을 무슨 方法으로 알라? 五官이 모조리 剝奪된 것이나 다름없다.(중략)
 끝없는 倦怠가 사람을 掩襲하였을 때 그의 瞳孔은 內部를 向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忙殺할

30) 瀬沼茂樹(1932) 「文芸時評」 『新文芸時代』

31) 磯貝英夫(1955) 「昭和文学作家研究」

32) 金子昌夫(2002) 『牧野信一と小田原』 夢工房, pp.3-4

33) 坂口安吾(1992) 「牧野さんの死」 『近代作家追悼文集成26』 ゆまに書房, p.19

때보다도 몇 배나 더 自身の 內面을 省察할 수 있을 것이다.

現代人의 特質이요 疾患인 自意識過剩은 이런 倦怠치 않을 수 없는 倦怠階級の 徹底的한 倦怠로 말미암음이다. 肉體的 閑散 精神的 倦怠 이것을 免할 수 없는 階級이 自意識過剩의 絶頂을 表示한다.³⁴⁾

이상과 같이 시골생활의 권태를 토로하며, 그것을 현대인의 특질이자 질환인 자의식 과잉의 원인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신 ‘오랜만에 돌아온 京城은 정답기 그지없다고 한다. 京城을 떠나고 싶지 않다. 카페, 그리고 脂粉냄새도 그득한 바야 하며 참으로 뼈에 사무치게 좋다는 게다³⁵⁾라고 근대도시 경성에 대해서는 향수를 드러내고 있으며, 도쿄(東京)에 대한 동경과 동일 결행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예를 들어 「斷髮」(『朝鮮文學』, 1939.4)은 오빠와 함께 도쿄행을 하기로 했지만 오빠에게 애인이 생겨 좌절한 친구의 동생(仙이)과 도쿄행을 하기로 하는 ‘衍이’의 이야기이다. 그 외에도 소설과 수필 곳곳에서 도쿄를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산견된다. 도쿄행 결의와 그 결행 역시 그와 같은 모더니티의 지향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동일하여 체험한 도쿄는 ‘小生 東京 와서 神經衰弱이 極度에 이르렀소!’³⁶⁾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신경쇠약이 걸릴 만큼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간이 된다. 그가 본 도쿄에 대한 실망은 다음과 같이 세세하게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토로되고 있다.

이 ‘마루노우찌’라는 ‘빨당’ 洞里에는 ‘빨당’外에 住民이 없다. 自動車가 구두 노릇을 한다. 徒步하는 사람이라고는 世紀末과 現代資本主義를 睥睨하는 거룩한 哲學人— 그 外에는 하다 못해 自動車라도 신고 드나든다.³⁷⁾

나는 ‘택시’ 속에서 二十世紀라는 題目을 研究했다. 窓밖은 지금 宮城호리 곁—無數한 自動車가 營營히 二十世紀를 維持하노라고 야단들이다. 十九世紀 뒤적지근한 내음새가 짙 많이 나는 내 道德性은 어찌서 저렇게 自動車가 많은가를 理解할 수 없으니까 結局은 大端히 짐작은 것이렸다. ³⁸⁾

그토록 동경했던 20세기의 현란한 도시-네온사인, 찻집, 콘크리트 건물, 백화점, 코룸방의 차, 기노쿠니야의 책 등 - 도쿄를 체험한 데서 오는 갈등과 불안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4) 이상(1993) 「권태」『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146

35) 이상(1993) 「첫번째 放浪」『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155

36) 이상(1993) 「私信(7)」『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236

37) 이상(1993) 「東京」『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95

38) 위의 책, p.95

새로운 희망을 갖고 찾아간 도쿄는 이상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의 불안과 공포는 마키노가 군국주의화와 근대화 일변도를 달리고 있던 소비도시 도쿄(=20세기)에서 느꼈던 그것과 동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벗어나 고자 환상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우울과 공포, 어둡고 피로한 심리, 증오, 반감 등 어두운 측면을 지니고 있었던 마키노의 작품세계와 일맥상통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자신의 도쿄행에 대한 실망과 후회를 ‘李太白이 노던 달아! 너도 차라리 十九世紀와 함께 殞命하여 버렸었던들 작히나 좋았을까’³⁹⁾, 혹은 ‘암만 해도 나는 十九世紀와 二十世紀 틈사구니에 끼여 卒倒하려 드는 無賴漢인 모양이오. 完全히 二十世紀 사람이 되기에는 내 血管에는 너무나 많은 十九世紀의 嚴肅한 道德性的의 피가 威脅하듯이 흐르고 있소 그러’⁴⁰⁾라고 토로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20세기(=마키노가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소비도시 도쿄)를 추구하려 하지만, ‘十九世紀의 嚴肅한 道德性的의 피가 威脅하듯이 흐르’는 자신에 대한 의식은 현실에 대해 우울과 공포를 느끼게 할 뿐이다. 그는 ‘내가 이 世紀에 容納되지 않는 最後의 한 꺼풀의 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간음한 아내는 내어쫓으라」는 鐵則에서 永遠히 헤어나지 못하는 내 곱판내 나는 道德性이다’⁴¹⁾라고 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에 대해 자각적이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落望을(아니 幻滅)을 주지 않게 하기 僞하여 그들과 만날 때 오직 二十世紀를 僅僅히 ポーズ를 써 維持해 보일 수 있을 따름’⁴²⁾이다 라는 고백처럼, 애써 현실에 적응하려 하지만 그것은 ‘僅僅히’ 취하는 ‘ポーズ’에 불과하며 그것은 그만큼 예민한 신경증을 유발할 소지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19세기적 가치와 20세기 가치의 갈등양상은 「早春點描」(『매일신보』, 1936.3.3~26)의 <斷指한 처녀> 에피소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막내 여동생 친구인 처녀의 이야기로, 그녀는 어머니 임종에 왼손 무명지를 끊어 東洋道德의 最高水準을 건드렸대에서 무슨 償인지 돈 三圓을 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의 뒤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不幸히 時代에서 비켜선 至高한 孝女 그 새악시! 그래 돈 三圓에다 어느 新聞 社會面 저 아래에 칼표딱지만한 우메구시를 장만해준 밖에 무엇이 小姐의 적막해진 無名指 억울한 事情을 가로막아 줍디까. 당신을 공경하면서 오히려 斷指를 미워하는 心思 저 뒤에는 아주 根本的으로 미워해야 할 무엇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小姐! 그대는 꿈에도 모르리라. ⁴³⁾

39) 위의 책, p.98

40) 이상(1993) 「私信(7)」 『李箱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p.235

41) 이상(1993) 「十九世紀式」 『李箱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p.155

42) 이상(1993) 「私信(7)」 『李箱문학전집3』 문학사상사, p.235

전통적 가치관, 동양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시대의 흐름에 빗겨가 스스로에게 잔인한 단지를 실행한 처녀에 대한 감상에 이상의 근대성의 추구 자세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건축, 옷차림, 생활양식 등과 같은 ‘물질적 문화만을 맹종’하는 것이 아닌, ‘시대와 생활 시스템의 변천’을 좇아서 ‘이 時代와 이 生活에 準矩되는 適確한 倫理的 尺度’를 ‘意識的으로 立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는 그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와 같이 이상은 한편으로는 이십세기(=근대=소비도시)를 추구하며 모던 도시 경성과 도쿄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구세기적(=전근대적=환상적) 가치와 도덕에 갇혀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모순에 대한 인식에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새로운 문학적 갱생을 위해 도쿄행을 감행했지만, 도쿄 생활 한 두 달 만에 환멸을 느낀 이상의 심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상이 공감을 표했던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적 방법과 자살 배경을 고찰해 왔다. 1930년대 초반 사소설, 심경소설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의 기성문학이 군국주의화, 근대도시, 소비도시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안, 우울, 공포, 신경증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한다면 마키노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실적 수법에 의한 사소설 작가이면서도 현실의 불안, 공포, 초조 등을 환상적 세계로 재구성하는 하는 낭만적 작풍을 보이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현한다. 하지만, 그의 문학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게 했다. 그 결과 당시 문단에서 그는 소외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결국 절대 고독 상태에 몰린다. 그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걸려 창작상의 곤란에 봉착한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작가 정신은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마키노의 문학적 방법의 추구하고 작가정신이 시대와의 불일치로 인한 실패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가, 바로 문학적 갱생을 추구하여 도쿄행을 감행하지만, 한 두 달 만에 한편으로는 이십세기(=근대=소비도시로서의 도쿄)를 추구하며 모던 도시 경성과 도쿄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십구세기적(=전근대적=환상적) 가치와 도덕에 갇혀있다는 갈등과 모순을 지닌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발견한 이상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한다.

43) 이상(1993) 「早春點描」『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39

【參考文獻】

고은(1974.11) 『이상 평전』민음사, p.361
 김명주(2008)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助)와 이상(李箱)문학 비교-도쿄(東京)를 중심으로-」『일본어교육』제44집, p.99
 김명주(2011) 「마키노 신이치와 이상 문학의 ‘환상성’ 비교」『일본어교육』제55집, p.200
 김효순(2010.8) 「이상 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시대를 체현하는 문화현상으로서의 모던 걸 표상을 중심으로—」『Comparative Korean Studies』제18권 제2호, p.128
 _____(1933.4) 「미인 군상 직업부인의 명암색(美人群像職業婦人の明暗色)」『朝鮮及滿州』, p.91
 이상(1991) 「終生記」『李箱문학전집2』문학사상사, p.380
 _____(1993) 「早春點描」『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p.39-40
 _____(1993) 「東京」『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95
 _____(1993) 「권태」『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146
 _____(1993) 「十九世紀式」『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155
 _____(1993) 「私信(7)」『李箱문학전집3』문학사상사, p.236
 조사옥(2002) 「이상문학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일본문화연구』제7집, p.355
 伊藤整(1992) 「新銳作家座談会」『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51
 金子昌夫(2002) 『牧野信一と小田原夢工房』, pp.3-4
 車引耕介(1936.3.27) 「牧野信一の自殺」『読売新聞』
 小森陽一(1987.8) 「都会文学の成立と展開」『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昭和文学再検討—』第32卷第10号8月号, p.36
 坂口安吾(1992) 「牧野さんの死」『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19
 下村千秋(1992) 「牧野の生き方」『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34
 昭和女子大学近代文学研究室(1974) 『近代文学研究叢書第四十卷』昭和女子大学近代文化研究所, p.228
 竹盛天雄(1990) 「明治・大正文学の命脈 紅野敏郎・三好行雄・竹盛天雄・平岡敏夫篇」『昭和の文学』有斐閣, p.99
 中島健蔵(1992) 「日記より」『近代作家追悼文集成26』ゆまに書房, p.12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4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20일

 < 要 旨 >

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

본 논문은 새로운 문학적 갱생을 위해 도쿄행을 감행했지만, 도쿄 생활 한 두 달 만에 환멸을 느낀 작가 이상의 심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죽기 직전 공감을 표했던 마키노 신이치의 문학적 방법과 자살 배경을 고찰해 왔다. 1930년대 초반 사소설, 심경소설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의 기성문학이 군국주의화, 근대도시, 소비도시화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안, 우울, 공포, 신경증 등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한다면 마키노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실적 수법에 의한 사소설 작가이면서도 현실의 불안, 공포, 초조 등을 환상적 세계로 재구성하는 하는 낭만적 작풍을 보이는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현한다. 하지만, 그의 문학은 현실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게 했다. 그 결과 당시 문단에서 그는 소외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결국 절대 고독 상태에 몰린다. 그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걸려 창작상의 곤란에 봉착한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작가 정신은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여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마키노의 문학적 방법의 추구하고 작가정신이 시대와의 불일치로 인한 실패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가, 바로 문학적 갱생을 추구하여 도쿄행을 감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십세기 (=근대=소비도시로서의 도쿄)를 추구하고 모던 도시 경성과 도쿄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구세기적(=전근대적=환상적) 가치와 도덕에 간혀있다는 갈등과 모순을 지닌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발견한 이상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한다.

Anxiety in Lee-Sang's Literature and Makino-Shinichi(牧野信一)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ntal state of Lee-Sang when he became disillusioned soon after he had arrived at Tokyo in hopes of restart, by focusing on Makino-Shinichi's literary works and suicide, with whom Lee-Sang empathized right before his death. The works of Makino display major characteristics of 1930's autobiographical literature, which has themes of anxiety, depression and fear caused by drastic social changes such as prussianization and urbanization. Being realistic and autobiographical, his style is unique in that it recasts the anxiety and tension into a romantic fantasy. However, literature could not save him from the depressing situation. As a result, he fell into absolute loneliness, alienated from the literary world and from his nearest family members. He suffered from a nervous breakdown along with insomnia, which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continue writing. In the end, he succumbed to the situation and committed suicide. Such discordance between his literary ideal and the social situation triggered anxiety and fear. The discrepancy might have triggered sympathy between him and Lee-Sang, who felt ambivalent about his pursuing modern values while being captured in a premodern way of thinking.